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18> 함께하기 위한 복지정책

# 입양센터부터 재난 생존키트까지...복지는 늘리고 사고는 줄여요

‘개 팔자가 상팔자’. 일이 많고 고생스러울 때 놓고 있는 개가 부럽다고 해서 나온 속담이다. 요즘에는 해 먹어서 일과를 즐기고 유치원을 다니며 침 맛고 뜸 뜨며 호의호식하는 반려동물 정도가 되어야 해당되는 속담일 것 같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 어찌보면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동물이 많아지는 했지만 여전히 확대를 당하거나 버려지고 안락사 당하는 동물이 많은 세상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넘어 이제는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지자체들의 다양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재난대비를 위한 반려동물 키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놀이터,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와 전남·북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알아본다.

## # 광주시

맹견관리수칙·동물등록제 홍보물 배포  
동물보호법 지도홍보반 집중 활동  
문화·입양센터, 놀이터 운영키로



광주시 반려동물 문화 홍보물

## # 전남도

문화센터·유기동물보호 사업에 29억  
극성,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지원  
해남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서 동행캠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재해 생존키트’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키트를 제작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생존용품까지 챙길 시간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개와 고양이용으로 나눠 제작된 키트는 텐트, 목줄, 입마개, 물티슈, 담요, 복약약 등 사용이 편하고 안전성을 갖춘 응급처치 품목과 일주일 분량의 비상식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제작 후 첫 번째 사례로 지난 8월 수해피해를 입은 구례의 한 반려가족에게 재해키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 반려동물 배변 봉투 배포, 공공장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반려동물 재난지원반 추가 운영 등 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개물림 사고와 유기동물 증가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도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 해 광주시가 집계한 지역내 개물림 사건은 28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4000마리다.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8월초 맹견관리 수칙과 동물등록제 홍보물 4000개를 제작 배포한데 이어 학대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막기 위해 지도홍보반을 편성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남구 원산동 일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입양센터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가며, 2021년에는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반려문화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 가구 16%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전남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순천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순천시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더해 2021년말까지 센터 건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지정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와 관리를 하고, 유기동물 입양자에게는 진료와 미용 등 소요비용의 50%(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원해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극성군은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 9월 한달 동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지원한다.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만~5만원이 소요되는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가구를 위해 선착순 200개에 한해 수수료 1만원만 지급하면 칩 삽입과 등록까지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8월초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캠핑장에서 ‘반

## # 전북 전주

전국 최초 반려동물 보호 생존키트 제작  
개·고양이용 텐트·목줄·비상식량·약 등  
지난달 구례 수해 가정에 첫 전달



전주 ‘반려동물 재난재해 생존키트’

려견과 함께하는 캠프 동행’ 팸투어를 진행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66개팀 100여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 가죽 내임팩 만들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트레킹,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시간, 반려견과 함께 찾는 숲속 보물찾기, 플로깅(조강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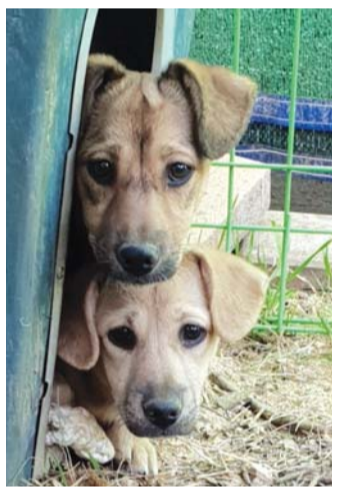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책임감 첫째 팔쥐, 영리한 둘째 촌덥  
노는 게 제일 좋은 두 막내 콩쥐·패티



팔쥐



콩쥐·패티

반려견 4마리와 함께 사는 다둥이 가정입니다. 8살 첫째 ‘팔쥐’는 하얀 털이 매력인 말티즈, 같은 8살인 둘째 촌덥이는 믹스견인데 귀가 쫄긋한 걸 보면 포메라니안이 섞이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봤어요. 셋째 콩쥐와 넷째 패티는 두 살 된 자매예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어느 공사장에서 학대받다가 구조됐는데, 모견은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SNS를 통해 안락사 공고야 얼마 안남은 아이들을 보게 됐고 불쌍한 마음에 입양을 결정했죠.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광주까지 데려다주셨어요. 함께 지내는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가족이 되었답니다.

팔쥐는 첫째답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자주 보여줘요. 새벽에 자발적으로 순찰을 도는데,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는 부모님, 누나, 형 방을 차례로 돌며 가족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피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집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촌덥이는 네 마리 중 가장 영리하고 가족들과의 교감이 좋은 아이예요. 콩쥐와 패티는 어려서인지 장난기가 많지만 아직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둘이서만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넷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언젠가는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사진찍을 수 있는 날을 꿈꿔 봅니다.

<김은혜·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I LOVE PET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